

# 정보사회의 원리 규명과 가족제도 변화에 관심 쏠려

2001년 사회학계의 성과와 과제

조정문 |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2001년은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초래될 한국사회의 변화에 관심이 고조된 해다. 그 결과 정보사회 혹은 사이버공간의 특성, 인터넷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족제도의 변화 등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높았다.

회선교환이 아니라 패킷교환 방식에 기초해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세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막힘 없이 하나로 연결하는 통신망이 구축됐다. 그 결과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자우편과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출현으로 전 세계 모든 행위주체(개인, 기업, 정부조직, 학교, 도서관 등)가 상호 정보(문자, 그래픽, 영상물 포함)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민족·사회간 단절과 폐쇄성 극복 가능성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신속성으로 우리의 생활리듬도 한 걸 빨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오랫동안 정착 농경생활 전통을 이어온 우리 민족에게는 인터넷이 도입됨에 따라 유목생활과 개인주의적 전통이 강한 서구 사회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사이버공간의 문제 다른 책들 넘쳐나

이런 흐름에 맞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퍼낸 《인터넷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연구》는 인터넷이 정치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지역기반 공동체의 실현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번역서인 《사이버공간과 공동체》(마크 스미스 외 엮음, 조동기, 나남출판)는 사이버공간의 공동체와 실제 공동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흔히 익명적이라고만 알려진 사이버공간에서도 성별·소득·직업 등에서 기존 권력관계가 재현될 가능성과 사이버공간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집합행동 공간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의 사회학》(박창호, 정립사)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문화와 사회화, 사이버민주주의, 인터넷 귀족,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일탈 등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날 여러 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가족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저서들이 출간됐다. 《가족주의는 야만이다》(이득재, 소나무)라는 다소 도발적 제목의 책이 출간

됐다. 한국사회의 가족주의를 비판한 이 책은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안전판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 상태에 놓여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이동원 외, 양서원)은 별거가족, 재혼가족, 독신가족, 이혼모자가족, 무자녀가족, 입양가족, 톤크(TONK)족, 집단가족, 장애인가족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대안적 가족제도 모색해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변화순 외, 한국여성개발원) 역시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등장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고전적인 가족 형태인 핵/직계가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거부부, 동성애 가족, 독신여성가구, 모자가족(한부모가족) 등 대안적 가족의 가능성과 함께 이에 따른 여성의 역할 및 지위 변화도 논의했다.

현재 우리 가족생활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고 있는 장남부부와 시부모와의 가족관계를 다룬 《장남과 그의 아내》(김현주, 새물결)는 33명의 인터뷰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가족생활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사회학》(조정문 외, 아카넷)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하고, 배우자선택·결혼생활·자녀양육·노부모부양 등과 같은 가족관계, 이혼·가족폭력 등의 현대가족 문제 그리고 미래가족에 대한 전망을 다른 사회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다뤘다.

이처럼 2001년은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가족의 변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강하게 표출된 해라고 생각한다. 올해의 이런 성과를 토대로 2002년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결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

조정문 연구원은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전산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가족사회학》(공저) 등을 펴냈다.